

道 민선8기 투자협약 실투자율 62% 돌파

지난해 6월 57% 3달 만 55%p 상승
227건 중 46개사 투자 완료·가동
입주·건설·준공 96개 기업 이행
전담관리제 도입 밀착 지원 '성과'

전북도는 민선 8기 체결된 투자 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비율이 62.5%에 해당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기준 실투자율 57%에서 3개월 만에 5.5%p 상승한 수치로, 투자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9월 기준 전북자치도가 체결한 투자협약은 총 227건으로 이 가운데 20.2%에 해당하는 46개 기업은 투자를 완료해 실제 가동하고 있다.

96개 기업(42.3%)은 입주 계약(53개소) 또는 건설 단계(36개소), 준공 완료(7개소) 등 정상적으로 투자를 이행하고 있고, 63개 기업(27.8%)은 투자 준비 단계에 있다.

일부 기업은 글로벌 경기둔화 및 투자 위축, 원자재·금융시장 변동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협약을 철회하고 투자 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4년 7월 투자 유치기업 전담관리제를 도입해 기업의 투자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투자 협약부터 사업 준공, 실제 가동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는 분기별로 현장 방문과 유선 통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은 단순 민원과 복합 민원으로 나눠 기

업민원 신속처리단과 연계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담관리제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총 20건의 기업 애로사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6건은 즉시 해결하고 나머지 4건은 단기·중장기 과제로 지속 관리하고 있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공장 부지 보조금 지원, 환경 인허가 절차 지원, 자금

조달 연계 등으로 유치기업 전담제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기업유치 성과를 위해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투자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투자까지 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2026 전북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

전북도는 지난 9일 일반기자 30인과 전문필진 5명 구성의 전북특별자치도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전북자치도>

'대포폰 경선' 후폭풍...민주당 '안심번호 여론조사' 손질론

진안군 안심번호 월간 3천대 급증
공천 룰 신뢰 문제 논란 재점화
선관위 전북경찰에 수사 의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포폰 경선'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기준인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여론조사(50%비중)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북 진안군에서 지방선거를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사들은 최근 전북경찰청에 '안심번호'에 의한 민주당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대포폰이 동원되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말 '진안군의 군수입후보자의 지지도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안심번호(SK, KT,

LG유플러스)의 진안군 총수가 지난 8월 말 기준 10,436개로 지난 7월 말 기준의 7,421개에 비해 무려 3,015개가 늘었다'며 선관위·전북경찰청에 고발했었다.

선관위는 이같은 고발을 근거로 진안군 안심번호 전화기의 증감을 조사한 뒤에 선거 브로커들에 의한 대포폰 유입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중이다.

안심번호는 국내 SK 등 3사에 기인한 알뜰폰 등을 제외한 일반전화 중 요금 청구지가 진안군으로 등록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추출하고, 여론조사 기관은 안심번호를 모집단으로 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진안군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2만4000명 내외이며, 안심번호수는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는 7500개 내외

여론조사 연월일	안심번호 수	비고
2025.01.20	7,586	
2025.06.23	7,436	
2025.08.23	7,421	
2025.09.23	10,436	3,015개 급증(40%)
2025.12.18	8,870	1,566개 급감(15%)
2025.12.30	10,456	1,586개 급증(18%)

민주당의 지선 공천기준인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안군의 2025년 월별 안심번호 수 증감현황
였으나 추석 전의 여론조사부터 기형 적으로 증가했다.
실제 진안군의 안심번호 숫자는 지난 25년 1월 말 여론조사에서 7,586개였고, 지난 6월 23일 조사에서는 7,436개, 8월 23일 조사에서는 7,421개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3일 실시된 조사에서는 전달에 비해 무려 3,000여개가 늘었고, 12월 18일 조사에서는 8,870개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12월 30일 조사에서는 10,456개로 늘어나는 등 진안군의 인구 변화를 거의 없는데도 안심번호 전화가 기형적으로 증감했다.

이들은 "각종 공직선거 입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및 경선시에 '성별'과 '연령' 등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응답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유기상 고발은 정치공작"

도당 "근거 없는 고발" 의혹 반박

"압수수색은 통상적 수사 절차"

"선거 전 흡집내기 정치" 비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고창군 유기상 지역위원장(전 고창군수)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과 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도당은 "지난 8일 진행된 압수수색은 고발이 접수된 사안에 따라 이루어진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현재까지 어떠한 위법 사실도 확인되거나 확정된 바는 없다"며 "언론이 추측이나 단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유기상 지역위원장 측의 입장과 객관적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확인해 기사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번 고발의 본질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친목 모임에서의 회비 각출을 마치 불법행위인 것처럼 둔갑시켜 문제 삼은 것으로,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적 위법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기된 이른바 '묻지마 고발'에 해당한다"며 "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인물을 흡집 내고 선거를 훤히하게 만들며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려는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수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거 없는 고발과 의혹 제기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역사회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다"며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러한 구태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블로그 기자단 17기 출범 전문필진 합류 콘텐츠 강화

일반기자 30명 등 35인 1년 활동
정책·문화·관광·일상 현장 전달

전북도는 지난 9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로 17기를 맞은 전북특별자치도 블로그 기자단은 일반기자 30명과 전문필진 5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기자단은 앞으로 1년간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 다양한 현장을 직접 취재하며 전북의 생생한 이야기를 온라인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단에는 전북도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기자들이 포함돼 있어 지역 안팎의 시각을 아우르는 참신한 콘텐츠 제작이 기대된다. 특히 사진, 일러스트, 영상, 문화, 웹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필진 5명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깊이 있는 콘텐츠로 블로그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을 유도하기 위해 선거 브로커들을 통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록기자

고창군

겨울마저 한 장면이 되는 곳,

고창

道, 한국호텔업협회 MOU 올림픽 숙박 인프라 확보

골든타임TF, 숙박분야 첫 공식 협약
유치 확정 시 4·5성급 호텔 활용 협조
합리적 요금 책정·행정 지원 연계
공동 실무협의체 구성 상시 점검

전북도가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과제인 숙박 인프라 확보에 본격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9일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한국호텔업협회와 전주하계올림픽·파럴림픽 유치 숙박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회 기간 안정적인 숙박 인프라와 국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자치도가 가동 중인 '올림픽 골든타임 TF'의 숙박 분야 첫 공식 협약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종시하는 대회 운영 여건 중 하나인 숙박 분야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림픽 유치 확정

시 한국호텔업협회는 대회 기간 중 4·5성급 호텔을 중심으로 한 주요 숙박 인프라의 우선 활용에 적극 협조하고 전북자치도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책정과 행사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연계한다. 양측은 서비스 품질, 객실 안전, 환경 기준 등 국제대회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관리·운영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단발성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공동 실무협의체(TF)를 구성해 회원 호텔별 협력 상황을 점검하는 등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협약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호텔업협회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조선호텔앤리조트 등 전국 200여 개 호텔을 회원사로 둔 국내 최대 호텔단체로, 협회의 참여는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숙박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



전북자치도는 9일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한국호텔업협회와 전주하계올림픽·파럴림픽 유치 숙박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도>

번 협약은 전주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든든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호텔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북과 전주가 세계인을 맞이할 준비를 차근차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숙박을 비롯해 교통, 안전, 문화 프로그램 등 국제 행사 전반에 걸친 준비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며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정개특위는 1명을 선출하는 장수군의 광역의원이 표의 등가성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장수군의 광역의원 정수를 1명으로 할지, 아니면 인근 시군에 병합하여 선출하게 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이같은 전북의 현안 등을 고려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강화,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

선거여론조사의 남발 방지, △예비후보등록 시·군 차별 해소 등 다수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선거제도·정치개혁에 앞장서왔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선거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과 지방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소외되지 않도록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읍·고창, 전북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 및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록기자

이원택 "한중 상무협력 대화 신설...새만금 투자 전환점"

'15년 중단' 장관급 소통채널 복원에
이 의원 "새만금 재도약 계기"
"신항부지 일대 규제완화 필요"



이원택 의원

들을 만들여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는 15년간 중단됐던 한중 간 장관급 정례 소통채널을 복원·고도화한 것으로, 교역·투자·공급망 협력 전반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한중 FTA 이후 공동 산업단지로 지정됐음에도 투자 성과가 미흡했던 새만금이 다시 공식 의제로 부상됐다"며 "새만금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북 산업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협력 MOU 체결과 중국 상무부 투자조사단의 새만금 방문은 전북이 단순한 국내 산업단지로 넘어 동북아 공급망과 연결되는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이는 전북의 통상·외교·레버리지(지렛대효과)를 확대하고, 부품·소재, 녹색에너지, 바이오·제약 등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신항 배후 부지 일대를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도시로 발돋움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새만금

이 K-푸드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절차 없이도 1월 중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각 시·군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및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박순임 전북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제도"라며 "많은 도민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한은 원래 1월 31일까지이나, 마감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오는 2월 2일(월)까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기준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핵심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중요한 것은 투자 조사단 방문 이후"라며 "조사와 검토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빠르게 실제 투자 프로젝트로 연결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내 상장 성과와 실효성을 갖춘 시범 투자 성과가 새만금 중국 투자 확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전북이 투자 즉시 가능한 한 인프라와 행정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실질 성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새만금과 중국이 동반 성장하는 실질적 투자가 가시화되기를 전북도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록기자

전북도, 자동차세 1월 연납 최대 4.6% 공제 혜택

내달 2일까지 신청 납부 가능

전북도는 2026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최대 4.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 기준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등 연

연납구분	공제율	비고(실제 공제율)
1월 연납	11개월분(2~12월)의 5%	연세액의 약 4.58%
3월 연납	9개월분(4~12월)의 5%	연세액의 약 3.75%
6월 연납	6개월분(7~12월)의 5%	연세액의 약 2.51%
9월 연납	3개월분(10~12월)의 5%	연세액의 약 1.26%

신청기간별 공제액

중 네 차례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3월에는 약 3.8%, 6월에는 2.5%, 9월에는 1.3%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원래 1월 31일까지이나, 마감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오는 2월 2일(월)까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기준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각 시·군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및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박순임 전북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제도"라며 "많은 도민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윤준병,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 선임

지방선거구·의원정수 제도 정비
장수 광역의원 처리 향방 촉각



선거여론조사의 남발 방지, △예비후보등록 시·군 차별 해소 등 다수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9일 '6·3 제3회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 입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로 구성되었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산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비롯해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 관련 법률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국회 내 핵심 특별위원회다.

이번 정개특위는 1명을 선출하는 장수군의 광역의원이 표의 등가성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장수군의 광역의원 정수를 1명으로 할지, 아니면 인근 시군에 병합하여 선출하게 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이같은 전북의 현안 등을 고려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강화·△선거여론조사 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

용 대상의 전면 확대다. 종전에는 해당 시설에 등록된 아동만 연장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야간 연장 돌봄은 시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긴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용 대상 연령은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이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센터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관할 지역 거주자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아 직장 인근이나 출퇴근 동선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 절차도 간편하게 마련됐다. 돌봄이 필요한 날 기준으로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최대 5일 전부터 시전 예약도 가능하다.

이용료는 센터별 상황에 따라 1일 5천원이며,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참여 센터 또는 지역 아동센터 전북지원단(063-227-5479)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하원 시에는 보호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아동과 동반 귀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는 향후 상시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한파 6대 행동요령 ★ '작은실천'으로 사고 예방 합시다

기상상황 확인하기
한파주의보 -12°C 이하
한파경보 -15°C 이하

야회활동 자제
저체온증·동상 위험 급증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

주변 이웃
안전살피기

수도관 동파 예방

우범기 전시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 TF 회의' 개최

숙박관광객 인센티브 정책 분야별 세부 과제 정리

우범기 전시장은 지난 9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TF 회의'를 개최했다.

TF 회의는 전주시 △전주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전주시정연구원 등의 유관기관과 △관광 전문가 △관광업계

민·관 합동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과제로 △인센티브 정책 △수용태세 개선에 대한 분야별 세부 과제를 정리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주관광상품 개발 및 글로벌 홍보 강화(관광) △전주만의 미식 자산 (JK-FOOD, 스토리 디아이)과 특화콘텐츠(마당장극, 한지 등)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문화) △전주사랑상품권

플랫폼 확장 등 외국인 교통·결제 편의성 제고(교통) △숙박·식품점업체 위생 및 서비스 개선 강화(위생) 등이 포함됐다.

시는 TF 정례회의를 통해 숙박관광객 인센티브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과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는 숙박관광객 인센티브 정책

과 수용태세 개선 사업을 중장정부 및 광역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단계별 실행 가능성은 높아나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TF 정례회의를 중심으로 실현성 있는 전략을 추진해서 전주를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54억 지원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3~3.5% 이자보전 사업

전주시가 2026년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시는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한 해 총

규모는 154억원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상반기 중 60% 약 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은 전주지역 9개 은행 △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되며 최대 3.5% 이자보전율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사업장 소재 중소기업으로 업체별 최대 3억원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운송업(시내버스·법인택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체 등으로 설정됐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 5000만원 이하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접수 기간 내 전자우편(fanht@korea.kr) 또는 방문 및 우편(덕진구 팔과정로 164, 3층 기업지원사무소)으로 접수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농어촌공 전주완주임실지사, 농업기반 시설 개선·지역 상생 협력 강화

전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 시설 안전성 강화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9일 우범기 전시장과 김세영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은 양 기관이 추진 중인 농업기반시설 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와 협력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도 공동 예산을 확보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23년 12월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농업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 환경 개선을 목표로 공동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 35억원을 투입해 농도



전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기반시설 안전성 강화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와 농수로, 교량 등 공사 관리 농업기반 시설의 안전대책시설을 단계적으로 정

비하고 있다.

그 결과로 양 기관은 협력사업을 통해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에 강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세영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은 "전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집중해 전주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 농업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핵심 파트너"라며 "신임 지사장 취임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립교향악단 '2026 신년음악회' 개최

오는 1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립교향악단은 2026년 시민들에게 새해 희망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신년음악회를 준비했다.

신년음악회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제276회 정기연주회 '2026 신년음악회(New Year's Concert)'로 열린다.

이번 신년음악회는 시민과 함께 새로 운 한 해의 출발을 알리는 무대로 꾸며진다.



공연 첫 곡은 오토 니콜라이 '윈저의 즐거운 아내네들 서곡'이다.

이어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깊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마지막 곡은 루트비히 판 베토벤 '교향곡 제5번 다단조, 작품 67'이 연주된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이번 '2026 신년음악회(New Year's Concert)'를 통해 음악 정체성과 함께 미래 향한 도전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인 김진 지휘자가 객원 지휘를 맡아 정교하면서도 힘 있는 해석으로 신년음악회의 완성도를 높인다.

또 피아니스트 예수아가 참여해 깊이 있는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입장권은 R석 1만원, S석 7000원이며, 나루컬쳐 누리집 (www.naruculture.com) 또는 전화(1522-6278)로 예매할 수 있다. 학생 및 예술인패스 카드·다동이카드 소지자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관원,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오는 3월 13일까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숙, 이하 전북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

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징수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 전북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귀뚜라미문화재단 모범 학생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전주시와 귀뚜라미그룹이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 위한 든든한 후원자로 나섰다. 지난 9일 우범기 전시장과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 및 장학생 등 50여명은 '전주시-귀뚜라미문화재단 모범 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에서는 체육 특기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된 전주지역 중·고등학생 됐다.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지난 2024년까지 전주지역 학생 80명에게 총 1억5000만 원을 후원하며, 전주지역 인재 육성의 큰 축을 담당해왔다. 올해를 포함하면 누적 지원액은 2억원에 달한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야말로 기업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전달된 장학금이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 경찰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사고 피의자 구속

지난 4일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5km 지점 2명 사망·7명 중경상

원인 규명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를 확보 분석하고, SUV 차량 운행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졸음운전 중 발생한 사고다 진술"했다.

경찰 사고조사결과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작동되고 있어 제동 폐달 작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지 않음)

이에 전북경찰은 2인 생명 희생·다수의 부상자 발생 등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2026.01.04. 긴급체포 후 2026.01.05.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1억원 피싱 범죄 피해 막았다!"

피해자 소재 신속히 파악해 억대 피해 사전 차단

안내 팻말을 단서로 인근 교회를 수소문한 끝에,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전주시 삼천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미 계좌에 현금 1억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피해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범죄임을 인식시키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서근필 형사과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존 수법뿐 아니라 카드 배송, 셀프 감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도내 입체교차로 교통안전시설 특별점검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여주행 진입 예방을 위해 입체교차로 179개소를 대상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간 특별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도내 한 입체교차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역주행 정면충돌 교통사고 발생으로 도내 주요 입체교차로 및 여주행 우려 구간에 대한 교통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특별점검을 통해 △진입금지 등 안전표지·노면표지 추가 설치 등 △상태점검 노면색깔유도선 추가 설치 △재도색 여주행 진입방향 물리적 시설(시선유도봉 등) 설치로 회전반경 축소 램프구간 연결로 중간에 진입금지

△직진금지 추가 설치 등 총 379건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점검 도중 전북경찰청·경찰서·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합동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며 우려 지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점검 결과를 도로 관리청에 통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여주행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시설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취약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선제적 안전대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해 달리"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생명나눔 혈액 캠페인' 진행

영하 3도에 나누는 36.5도 온기

동으로 주관했다. '생명나눔 혈액 캠페인'은 지역민들과 병원 직원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생명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직원들과 내원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다양한 생명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발표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감사위원 감사…내부 통제장치 문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25.11.24~12.19.까지 총 26명(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 결과 발표는 현재까지 확인된 감사내용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처분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25.11.24~12.19.까지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두 곳에 감사장을 설치해 동시에 실시했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 6명)가 참여했다.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실(감사)·농업 금융정책과·농촌사회서비스과(지도·감독) 업무 담당자 9명과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등 4개 공공기관 감사·검사업무 담당자 11명이 협력하는 등 총 26명을 투입해 진행했다.

주요 감사내용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26.1.5.)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가 감사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제보시기, 감사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던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중앙회 37, 재단 1)도 추가 감사.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중 현장확인의 어려움 등 특별감사를 통해 감사하기 어려웠던 회원조합도 현장 중심 특정감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와 연계해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

할 예정

△농협중앙회(인사총무팀)에서 일부 농업인 단체 및 학계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한적·폐쇄적으로 구성·운영 △2024년 제15차 이사회에서 특별성과보수를 1인 즉석 안건으로 상정·의결함으로써 지급사유·금액 등에 대한 명밀한 검토없이 부회장(전무 이사), 집행간부 등 11명에게 총액 157백만원(14~16백만원) 지급 △농협중앙회는 부서별·직급별 정원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감사위원장이 아닌 부회장(전무이사)에게 인사서열(승진·전보)을 보고하고 농협중앙회 인사부서가 승진 규모를 검토·조정함으로써 조합감사위원회의 인사독립을 훼손

△정보보록 공개,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비상임 이사·감사, 조합감사위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활동 수당(월 3~4백만원)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지급 △농협장학관은 규정에서 정한 직급(M·3·4급)이 아닌 전문계약직으로 채용 △기부물품이 농업인 등에게 기부목적에 맞게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 안됨 △농협 관련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통해 간접 구입하는 등 납

득하기 어려운 계약방식들이 다수 발견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90백만원의 실비·수당,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퇴직금(前회장 420백만원)까지 수령하면서 퇴직시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前회장 323백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 등이 별다른 제한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 및 집행실태를 검토할 계획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구성원 5명 중 3명이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전직 임원 또는 前·現 조합장으로 구성된 점, 준법 감시인이 내부인으로 임명돼온 점 등 내부통제 역할을 해야 할 조직이 내·외부의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돼온 것이 날은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점검·검토할 계획이다.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임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에 대해 제보내용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거쳐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장수한우'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무진장축협한우·인증서수상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인증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한 후에 브랜드를 선정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인증제도이다.

무진장축협 송제근 조합장은 "장수한우" 브랜드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우수축산물로 다시 한번 검증받은 좋은 기회였고, 더욱

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로 인증받아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장수한우'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소비자로부터 인정받는 우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 “인건비 때문 아냐”

“최소 근무 기간 3년 이상 보장돼야” 한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 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건비 절감(13.4%)보다 △내국인 구인난(82.6%)이 심하기 때문이며,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산업 현장에 대한 '내국인 취업 기피'([‘23년)89.8%→(‘24년)90.2%→(‘25년)92.9%]는 해마다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높은 급여와 고용 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고용 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53.2만원(급여 216.5만원, 임금수당 32.1만원, 부대비용 4.6만원)이다.

숙식비(39.6만원) 포함 시 외국인 1인당 인건비는 292.8만원으로 응답업체

66.6%의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 급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23년)211.3만원→(‘24년)213.1만원→(‘25년)216.5만원]과 반대로 임금 수당은 지속적으로 하락해([‘23년)48.1만원→(‘24년)42.5만원→(‘25년)32.1만원] 중소제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응답업체 97.8%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한도에 미달해 고용한 다"고 답했다.

이외 △인건비 이외 고용 비용 부담(신청 수수료, 숙식비 제공 등)(44.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36.6%) △경기 침체로 일감 감소(34.9%) 순으로 응답해 비용 부담이 고용 한도 미달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대비 66.8%의 생산성만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97.1%의 기업이 수습 기간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평균 3.4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담당한다고 과반수 가까이 응답([‘24년)29.5%→(‘25년)48.2%했다.

이는 중소제조업체들의 고숙련 직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31~50인 기업의 경우 59.7%(그

런 편이다 58.3% + 매우 그렇다 1.4%)로 높게 나타나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보였다.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94%가 사업장에서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3년 초과 74.4% + 3년 19.6%)으로 정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숙련 형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시사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신 국가'와 '한국어 능력'의 격차는 단 3.1%p로 한국어 능력이 채용 시 중요 고려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

어 수준)'이 과반수 이상(52.1%)을 차지했다.

의사소통 애로사항으로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어 수준이 생산성과 연관됨을 시사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등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41%)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31.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양우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인 만큼, 사업체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중기청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개최

제도 변경 등 설명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202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약 4조 4,449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76.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이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에도 공공구매제도가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중기청 전세희 청장은 "적극적인 공공구매제도 이행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첫 단계"라며 "이번 설명회가 전북 지역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2026년 기술개발제품 재지정 등 제도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질의를 받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구매담당자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입력을 위한 공공구매정보방(SMPP) 이용방법 및 실제 접두 기준 안내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중산신협,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 진행

전주중산신협(이사장 리양보)은 신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사업은 지역사회 이익환원과 인재육성을 위해 기획됐다.

전주중산신협 테평본점(중앙중학교, 전주초등학교, 진북초등학교, 중화산지점, 신홍중학교, 화산초등학교, 종산초등학교), 해천지점(요천초등학교)의 인근 학교들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총 7개 학교 32명의 학생에게 5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지금까지 전주중산신협은 매년 20명, 400만 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 총 400명 학생들에게 8천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전주중산신협 리양보 이사장은 "아이들의 오늘을 응원하는 일은 곧 지역의 내일을 밝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지역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 구급 유공자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해 동안 현신적인 구급활동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지역 응급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3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각종 재난·응급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역량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대상으로 수여됐다.

수상자 중 하경옥 소방경은 구급팀장으로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과 병원 간 이송·처치 과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급 업무 전반을 총괄해 왔다.

강기애 소방장은 구급기술경연대회 운영요원으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교

농식품부 “돼지고기, 계란” 할인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둔 1월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1월 8일(목)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슈퍼마켓 1천여개 지점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까지 할인을 실시한다.

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농협유통, 하나로유통을 통해 납품단가 인하(특란 30구 6,100원 이하로 납품 시 판

당 1천원 지원)를 1차 1월 8일부터 15일까지, 2차는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해 소비자에게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고기마트는 증가하고 있고, 산간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이 상황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추가 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계란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1월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수입을 추진 중에 있다.

2월에도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닭고기 성수기(5~8월)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을 위한 육용종란(712만개) 수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

2026학년도 평준화 고교 합격자 9,328명 발표

오늘 공개 추첨

16일 배정 결과 발표

19~21일 합격자 등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9일 2026학년도 평준화지역(전주·군산·익산)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신입학 합격자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신입생 모집정원은 총 9,368명으로 지원자는 9,665명이었다.

이중 전주 5,798명, 군산 1,850명, 익산 1,680명이 합격했다. 불합격자는 전주 98명, 익산 13명, 군산은 없다.

군산 지역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수가 전년 대비 75명 증가(2,435명→2,510명)했으나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지원자 수가 전년보다 10명(1,905명→1,895명)

감소하고 특성화고 지원자가 56명(238명→294명) 증가하면서 31명 미달됐다.

전체 지원자 9,368명 중 226명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중복지원이 가능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에 합격했다.

정원 외 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 특례입학대상자)는 별도 선발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학부모·학생·언론인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학교배정 결과 발표회를 진행한다.

참관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는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학교배정 결과 발표는 오는 16일 오후 2시며, 소속 중학교와 전북고입전형포털에 접수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다. 배정된 학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

한편 평준화지역 39개교를 제외한 93개 고등학교 중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오는 2월 2~3일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제4기 전북학생의회 구성 완료

지역·학교급·성별 균형

미래사회 리더 성장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 제4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이하 전북학생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나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제4기 전북학생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주체형 의원(10명)'과 '지역교육청의 추천형 의원(40명)' 총 50명의 학생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14개 교육지원청의 추천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함은 물론 초 8명·중 15명·고 27명 등 고른 선발을 통해 학교급 간의 연계성을 높였다.

성별 비율 역시 남학생 24명, 여학생 26명으로 구성해 균형 잡힌 시각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예비 학생의원들이 의정

활동의 핵심 주체로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2026 전북 및 지역 학생의회 역량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 연수는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한 유대감 형성 △전북학생의회 운영 법령 및 규정 이해 △전북 10대 핵심과제 △정책 발굴 및 제안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학생의원들의 자치 역량을 기르고, 공동체 정신 및 소통 역량을 겸

비한 미래사회 리더로서의 성장을 지원한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제4기 학생의회는 지역과 학교급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구성을 통해 전북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명확한 정당성을 갖췄다"며 "전북의 학생들이 교육정책의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직접 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모터스FC '대형 스트라이커' 모따 영입

최전방 공격라인 완성

전북현대모터스FC가 검증된 브라질 출신 대형 스트라이커 모따(29세)를 FC 안양으로부터 임대 영입하며 공격진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전북현대가 지난 9일 지난 시즌 K리그1 득점 순위 5위(14득점 4도움)에 오르며 FC안양에서 맹활약한 모따가 팀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모따는 193cm, 87kg의 강력한 퍼지컬을 앞세워 상대 수비와의 경합에서 우

위를 점하는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단순 한 높이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발기술과 연계 플레이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전북현대는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최전방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모따를 전격 낙점했다.

전북현대는 더욱 다양하고 강렬한 공격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K리그1의 완벽한 적응을 끝낸 모따를 품파뇨, 티아고 선수와의 최적의 파트너로 판단했다.

특히 세 선수가 최전방에서 선보일 제

공권 장악을 비롯한 파워 넘치는 공격

과 골 결정력은 리그를 암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북현대의 2선 지원들과의

시너지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모따는 2022년 한국 무대에 입성한 이후 2024년까지 천안시티FC에서 활약하며 득점왕(2024년)을 차지하는 등 꾸준

한 성장세를 선보였다.

지난해 승격한 FC안양으로 팀을 옮겨 K리그1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모따는 14득점 4도움을 올리며 다시 한번 자신

의 기량을 입증했다.

모따는 입단 소감에서 "대한민국 최

고의 명문 구단인 전북현대의 유니폼을

입게 돼 매우 영광이다"며, "팬들의 뜨

거운 응원과 전주성의 열기를 기억하고

있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팀

의 11번째 K리그1 우승컵을 들어 올리

고 전주성의 합성 속에서 스스로 증명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북현대 선수단은 지난 7일 소

집해 2026시즌을 위한 첫 훈련에 돌입

했으며 11일 동계 전지훈련을 떠났다.

/장정철 기자



"사회정서교육 강화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전북교육청, 교사연구회도 운영

프로젝트와 소식지를 발행하는 중점학교는 교과 및 학교 자율시간, 자유학기제 시간 등을 활용해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 운영한다.

중점학교 공모는 2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17차시 교수학습자료는 사회정서교육 교사연구회를 구성·제작할 계획이다.

사회정서교육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자기이해, 대인관계, 공동체 역량 등을 강화하는 학교 기반 교육이다.

도내 초5·중1·고1 학년을 중점학년 대상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조회·종례 시간을 활용해 연간 6차시 교육을 운영한다.

교수학습 자료는 늘 품우리 누리집과 에듀넷에 교수학습 지도안, PPT, 슬IDES, 범교과용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영상자료가 탑재돼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정서교육 중점학교 30개교를 운영한다. 감사와 배려

/최성민 기자



전주대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서 '5년 인증'

15년 연속 인증 유지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학과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6개 영역 27개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 전문적이고 양질의 간호 교육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간호 교육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공인제도다.

전주대학교 간호학과는 2022년부터 입학정원 증가를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아 2026년 현재 101명의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입학정원의 증가에 따라

실습실을 추가로 구축, 시뮬레이션 수업을 위한 공간 및 환경 구축 등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율리 학과 인재상을 새롭게 재정비해 △모범형 간호인재 △실무형 간호인재 △전문가형 간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해 나가고 있다.

김현영 간호학과장은 "질 높은 간호 교육을 목표로 매년 교육과정 및 학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전문 간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지평선 너머
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



군산시, 27일까지 스마트원예 분야 자체 사업 신청·접수

군산시가 원예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스마트원예 분야 자체 사업 관련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하는 스마트원예 분야 자체 사업은 △원예농산물 공선 출하 조직 육성 지원 △노지재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 △스마트원예 폐기지 지원 △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지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원예농업 재해 안전 지원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 △농업용 관정(중·소형) 개발 지원사업 등 총 9개이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 예정지(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7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별 시행 지침 등 세부 내용은 군산시청 누리집(www.gunsan.go.kr)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gunsan.go.kr/fa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어린이전용병동' 재도약 나서

지난 2025년 5월 문을 연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및 어린이전용병동'이 운영 첫 해부터 지역 소아 의료의 든든한 베풀목으로 자리 잡았다. 정읍시는 최근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90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확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주하며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 종료 이후 시간대나 휴일에는 전문의 당직 체계와 응급실 연계 시스템을 기동해 야간 소아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 학부모들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인근 대도시로 나가야 했던 '원정 진료'의 불편을 크게 덜어주며, 소아 환자들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시가 2025년 연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소아외래진료센터는 87.8점, 어린이전용병동은 89.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용자들은 특히 전문성 있는 의료진의 확보와 친절하고 충분한 설명, 체계화된 병원 시설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학수 시장은 "2025년이 센터와 병동의 운영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2026년은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이어온 점은 선전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통합원광대, 보건의료 인재 발굴·외국인 유학생 유치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 인재 발굴을 위한 해외 유학생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를 방문해 현지 대학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인재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원광대학교의 '웰니스케어학과' 신설과 원광보건대학교의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대학' 선정과 연계해 진행됐다. 보건의료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익산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협력체 '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반랑사이공대학교와 호치민시산업대학교, 사이공공업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한 시는 베트남 노동부 산하 인력수급 기관인 '소빌리코(SOVIILCO)'와 온라인 업무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 유학생 유치를 넘어, 졸업 이후 지역 보건의료 시설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와 익산시 외국인 지원정책을 적극 연계해 교육·산업·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형 AI산업' 육성 산·학·연·관 맞손

인공지능 기반 구축 지역 주력산업 융합 방안·실행 전략 모색

익산시가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인 '익산형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위원회' 발대식과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위원회는 '익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임기현 원광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위원회 운영 방향 논의와 익산시 정책과 인공지능 산업의 연계 방안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



됐다.

특히 '익산시 인공지능 산업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데이터 기반 구축과 실증 환경 조성, 전문 인재 양성,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 익산시가 추진해야 할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방향이 공유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위원들은 부서 간 연계 강화와 지역 주력산업과의 인공지능 융합, 기업 유통 및 실증 기반 마련 등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익산시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농업·식품·바이오 등 지역 강점 산업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형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은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인공지능산업 육성 위원회를 중심으로 익산의 산업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한파 대비 긴급 현장 점검

제설 창고·한파 쉼터 방문 "시민 안전 최우선"

정읍시가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예보된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기상청의 악천후 예보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겨울철 자연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일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해 순연국 도시안전국장, 김성의 재난안전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함께해 고, 쉼터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

제설 자재 보관 창고와 한파 쉼터를 중심으로 살폈다.

먼저 이 시장은 제설 자재 보관 창고를 찾아 염화칼슘 등 필수 자재의 비축 현황과 제설 차량 등 장비의 작동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눈이 내릴 경우 자체적인 점검을 병행했다. 급경사지나 상습 결빙 구간 등 위험 지역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폭설에 무너지기 쉬운 시설물의 안전 관리 상황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학수 시장은 "대설과 한파는 사진에 얼마나 철저히 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재난"이라며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전국 선수단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

1~2월 야구·유도·펜싱 등 다양한 종목 훈련 이어져

익산시가 동계 전지훈련을 잇달아 개최하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겨울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익산시는 오늘 2월 1일까지 3주간 예산종합운동장에서 '육상 미래 국가대표 후보·청소년·꿈나무 선수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육상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며, 투척 종목을 비롯해 육상 엘리트 스포츠 훈련의 최적

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훈련에는 투척 종목 꿈나무 선수부터 국가대표 후보 선수까지 75명이 참가 한다. 성호준 전임감독을 비롯한 지도자 11명과 의무 트레이너 1명이 함께해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구미교육지원청과 포항교육지원청, 경남체육 등 전국 각지에서 3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미래 국가대표 선수들과 협동 강화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2025년 시정 평가 '역대급 성적'

총 66건 수상 중앙부처 등 전분야서 고른 성과

정읍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와 외부 기관이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타일한 행정력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해 총 66건의 수상 실적을 올리며 15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 '강한 행정'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년도 기록인 55건과 비교해 20%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도내 최다 수상을 기록했던 상승세를 이어가며, 민생 경제 활성화와 시민 체감형 정책들이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증명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 혁신과 안전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 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정부혁신 왕중왕전 장관 표창,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단체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등을 휩쓸며 행정 혁신의 선도 도시임을 입증했다.

보건·복지·교육 분야에서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이 빛을 발했다. 2025년 자활분야 우수 기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정책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일자리와 안전 분야에서도 전국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수수료 0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한급형 무수수료 모델' 도입

농가별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 환급 기준은 △500만 원 미만 '전액'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5%'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2%'가 적용된다.

시는 올해부터 다이로움 로컬푸드 직매장의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출하 농가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차등 환급하는 '한급형 무수수료 모델'을 도입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하 농가에 일괄적으로 1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분기별 환급을 적용해 소규모·영세 농가일수록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로 바뀐다.

농가별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 환급 기준은 △500만 원 미만 '전액'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5%'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2%'가 적용된다.

이는 지역농업인의 소득 양극화를 줄이고,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영 안정과 재투자 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은 '생산은 농민이, 유통·판매는 익산 시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정책 전환으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멀티 커뮤니티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채우 개선 나서

군산시가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들의 인건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아동 급식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준비에 나섰다.

이번 대응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인건비가 당초 요구액 대비 10%(약 5,900만 원)가 감액됨에 따라 조리사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는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른 '아동급식비 자율지출 분(급식 단가의 20% 이내)'을 한시적으로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시비 직불금 129억원으로 상향

"농가 경영난 덜어준다"

이상, 최대 3㏊까지다.

수혜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약 1만 3440명으로, 시는 효율적 인 지원을 위해 지급 시기를 두 차례로 나눴다.

우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109억원은 오는 14일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시비 직불금은 전액 정읍시의 자체 재원으로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에 확대된 시비 직불금이 고물가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소득 보전에 조급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청년센터 '청년 생태계' 구축 성과

군산시는 군산시 청년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 기반의 '청년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실제로 작년에 운영한 14개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총 3433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자격취득 5종 △청년정책 아이디어 15건 발굴 등 실질적 결과물을 창출해냈다.

우선 시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지신 산업 및 AI-SW 분야 중심의 지역특화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직무 능력뿐 아니라 청년 심리를 보살피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정서적 지원도 병행했다.

실제로 군산시청신간강복지센터·전북청년마음건강

고창 해리천, 황새들의 겨울집 되다

멸종위기종 1급 천연기념물 역대 최대 규모 80여 마리 월동

고창군이 해리천 일원에서 환경부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황새 무리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여 마리나 월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에선 지난 2021년 60여 마리, 2023년 67여 마리가 발견됐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고

창 해리천이 황새들의 핵심 월동지임

을 다시금 입증했다.

황새는 예로부터 길조(吉兆)로 여겨져 왔으며, 고장 해리천이 이처럼 대

규모 황새 무리의 '겨울집'이 된 데에

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해리천은 해수

가 유통되는 자연 하천으로, 맹주위 속

에서도 수면이 얼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지닌다. 이는 새만금, 서산시, 태안군 등 국내 주요 황새 월동지들이 최근 한 파로 결빙되면서 황새들이 얼지 않은 해리천으로 집중적으로 모여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해리천 주변에 넓게 분포하는 갯벌은 미꾸리, 갯지렁이 등 황새가 좋아하는 풍부한 먹이원을 끊임없이 제공하며 안정적인 월동을 돋고 있다. 이

에더해 고창군은 황새의 안정적인 월동을 위해 먹이주기 및 환경정비 등 서

식지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황새의 애

생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먹이주기 등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황새 개체 증가에도 큰 도움을 줬다. 2023년 공음면 예전리

로 등지털을 이전 설치하는 등 번식 환

경 개선에도 힘썼으며, 고창에서 태어

/고창=백종규 기자

김관영 도지사, 김제시민과의 만남

청년 일자리·공항부지 활용 등 시민 의견 청취

김제시는 지난 9일, 김관영 전북특별

도지사가 김제시를 방문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현안과 시정 방향

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전경쟁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 여민유지"라는 주제로 전

북특별자치도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

고 민생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김 지사의 일정에 맞

춰 지역 주요 현안과 실정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다.

김제시의회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

작한 김 지사는 서백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지하대강으로 자리

를 옮겨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열린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도

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제시민들이 △화

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군도17호

선의 지방도 승격 건의 △청년들의 양

질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 지원 △방지



된 공항부지의 피지컬 AI 중심 거점으로 조성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후 김 지사는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한데 이어 김제전통시장장을 찾아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행정을 살폈다.

또한 오찬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장들과 만나

주요현안에 대해 자유롭고 허심탄회하

게 의견을 나누며 김제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지사는 "오늘 시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에서 김제의 현실과 가능성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며 "전북권 4대 도시로의 성장과 새만금 중심도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오찬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장들과 만나

주요현안에 대해 자유롭고 허심탄회하

게 의견을 나누며 김제시 방문 일정을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추진

21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취업 청년총 7명 선발·지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관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늘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인력비 지원으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해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18세부터 39세까지

의 청년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총 7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 기업은 김제시 소재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미취업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기업에서 채용된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 종이어야 한다.

서류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기업에 최대 1년간 매월 70만 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

여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2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김제시청 성장전략실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고공란을 참고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찾아가는 맞춤형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기후변화대응 고품질 안전농물 생산 기술추진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영농기술 전수를 위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지난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농업인 1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에 따른 현장 실용기술을 중심으로 배재배와 병해충 방

제기술, 고추·마늘 재배와 병해충 방제 기술, 고품질 논콩재배기술, 농촌자원 활용기술을 중심으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맞춤형 핵심기술과 농업인에 대한 해결을 위해 김강식 팀장과 정민영 팀장 등 현장 전문가 12명을 자체강사로 구성해 추진한다.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논콩 재배 기술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50명 농기를 대상으로 국립식량과학원 정건호 박사를 초빙해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방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벼, 고추 등 주요 농작물의 생리장애와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파종 및 영농관리, 돌발 병해충 대응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효율적 농업기계 사용 관리와 농작업 안전도 강조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영농에 유용한 필수 재배기술과 영농설계를 돋고 농업정책 방향을 알리는 동시에 농업인의 교류의 장으로 2026년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영농의 시작이라 알렸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청년·신중년 일자리 창출 돋는다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고창군이 청년과 신중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고용 창출을 위해 '2026년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청년(18~39세)과 신중년(40~69세)을 채용하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기간은 21일까지이며, 모집 규모는 청년 2명, 신중년 4명이다. 참여 대상은 관내 기업으로, 신규

참여 기업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존 참여 기업은 참여 당시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 인원 1인당 월 7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신중년에게는 24개월 근속 시 최대 300만 원의 취업장려금이 지급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은 기업은 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과 신중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 기업과 구직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안전점검의 날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

김제시는 지난 9일 김제 중앙시장 일원에서 1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함께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시 안전재난과가 주관해 김제 전통시장 상인 및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랭질환 예방 홍보물품인 핫팩과 함께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고 시민들에게 한파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 옥외작업이 직업군에게 중점적으로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 119 신고 등 한파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향보했다.

정성주 시장은 "겨울철에는 기온 저하와 결빙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과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조찬기도회 개최

고창군과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조찬기도회가 고창군 기독교연합회(회장 박준수 목사) 주최로 지난 9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조찬기도회에는 고창군수를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교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창군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기원 목사와 서종완 목사는 각각 '고창군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를 주제로 특별기도를 인도하며, 지역 사회의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음을 모았다.

또한 고창군 기독교연합회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사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했다.

고창군 기독교연합회 박준수 목사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고창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돼 지역 사회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6년 별세화를 맞아 고창군이 군정 슬로건인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고창군이 더욱 화합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설해 대비 제설 장비·자재 사전 점검

부안군이 지난 9일부터 예보된 강설 및 한파에 대비해 군민들의 안전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 열선 및 염수분사장지 점검 등 설해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정화영 부군수 주재로 도로관리소와 급경사 도로를 방문해 제설 대책 전반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았으며, 제설 자재 확보 현황과 관리실태, 비상체계 가동 등에 대한 부서 간의 신속한 협업 방안 등도 모색했다.

정화영 부군수는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과 한파로 인한 도로 결빙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특히 우슬재와 같은 상습 결빙 구간은 눈이 쌓이 시 통행 차량의 심각한 교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조동 제설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화영 부군수는 "겨울철 기습적인 강설과 한파로 인한 도로 결빙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특히 우슬재와 같은 상습 결빙 구간은 눈이 쌓이 시 통행 차량의 심각한 교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조동 제설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p

순창발효관광재단 주민참여 축제 '성과'

관광재단 첫 전북도지사 표창 수상
떡볶이 페스타·읍면 마을축제 등
발효자원 활용 고도화 모델 구축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지난 9일 관광재단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와 순창군 11개 읍·면 마을축제의 기획·운영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과 생활인구 유입에 기여한 점이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으며 수상으로 이어졌다.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순창 고추장을 기본 양념으로 활용한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를 주민참여형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순창발효테마파크와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읍·면별 특색 있는 떡볶이 메뉴를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는 이번 표창을 통해, 지역 고



순창발효관광재단이 9일 관광재단 최초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유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 기획과 주민 주도형 운영 모델을 정착시킨 관광객과 젊은 층의 방문을 크게 늘렸을 높이 평가했다. 읍·면 단위 마을 축제를 체계적으로 개발·고도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실제로,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는 전통 발효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관광객의 흥미를 이끌었으며,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선윤숙 순창발효관광재단 대표는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운영된 다양한 체험 프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소양복합체육시설 구이저수지 둘레길 '속도'

연초방문서 핵심 현안 사업 설명
생활체육 조성·관광코스 브랜드화

완주군 소양면 복합체육시설과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소양면과 구이면을 차례로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지역별 특성과 요구를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첫 방문지인 소양면에서는 소양면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조성 중인 복합체육시설은

파크골프장, 축구장, 다목적 편의시설 등을 갖춘 주민 생활 밀착형 체육공간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주민들은 무대 및 비기팀과 설치, 애간장형 도입, 배수시설 보강, 파크골프장 코스 재설계와 18홀 확장 필요성 등을 견의했다.

이어 구이면에서는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을



9일 소양면과 구이면을 차례로 유희태 완주군수는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지역별 특성과 요구를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완주군>

점검했다.

구이저수지 둘레길은 총 연장 9.3km 규모로, 기존 구간과 신규 구간을 연결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호수마을과 원형

가마을을 잇는 수상 데크로드 조성이 완료되면서, 끊겨 있던 동선이 하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들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수상레저단지와 기존 관광자원 연계, 지

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군은 둘레길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코스 브랜드화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관광과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유 군수는 "각 읍·면의 특성과 주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출산·양육 가정 주택·차량 취득세 감면

2차녀 가정 경우 취득세 50% 경감
출산 후 5년 내 주택 500만원 면제

남원시는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및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감면은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모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7인~10인승 승용차·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재차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되,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을 한도로 경감한다.

또한 만 18세 미만 2명의 자녀를 양

육하는 가정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70만원을 한도로 50%를 경감한다.

감면 혜택은 한 가구당 하나의 차량이 적용되며 기준 감면 차량을 보유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하고 1년 이내에 사망, 헌신,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한다.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

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과 차량은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필수적 생활 기반이라는 점에서 취득세 감면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道 2025 하반기 지방세 징수평가 최우수

징수율·체납액 정리 실적
행정 시스템 등 우수 평가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세정 행정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북자치도 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25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의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정리 실적 △현안 업무 추진 성과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우수 시·군을 선별했다.

완주군은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다각적인 징수 전략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액수색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25년 6월부터

스템을 통한 체납 관리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맞춤형 분할 납부 편의 제공 등을 병행하며 조세 정의와 납세자 편의를 동시에 쟁겠다는 평가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확보된 세원은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며, 앞으로 도 건전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전동보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나서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대상
최대 3천 보장 자부담 2만원

순창군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나선다.

군은 최근 6년간(2019~2024년)

전동보조기 보급 대수가 500대를 넘어선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이

용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2025년

부터 보험 지원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은 2026년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전동보조기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 1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되며, 이용자는 사고 발생 시 2만 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보장팀(063-650-1202)으로 연락하면 전용 상담센터(월드코리아닷컴)를 통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번 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대인·대물 배상)에 한정되므로, 이용자 본인의 상해나 전동보조기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 지원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 대상자 모집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한용재)는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거주하는 만 60세부터 70세(1956~1966년생) 시민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희망자 2000명을 2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는 단 한 번의 채혈로 혈액 속 '베타-아밀로이드 농도'를 측정하여 10~15년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매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검사로 검사비는 무료이며 남원시가 전액 부담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남원시 치매안심센터(620-7706)나 가까운 보건소·진료소에 전화나 방문 접수 후 예약일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검사 절차는 1차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정상군에 한해 2차 혈액검사를 실시하며, 1차 검사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될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추가적인 검사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검사 이후에는 남원시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치매 예방 교육 앱(기억하리)을 활용한 인지훈련을 비롯해, 검사 결과에 따른 치매 예방 콘텐츠 제공 및 신체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치매 예방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농식품 바우처 청년까지 확대…연중 지원

청년 가구 포함 사각지대 줄여
지원 기간 10→12개월 확대

이 출생한 청년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연중 12개월로 확대됐다.

신규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주 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

문신청과 농식품 바우처 플랫폼, 고객 지원센터(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대상자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담당팀과 맞춤형 복지팀이 연계해 대상자 발굴과 현장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인지 부족이나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과 흥보를 병행하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립중앙도서관

'책 읽어주는 문화나눔단' 선발

완주군립중앙도서관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동화구연과 책 놀이 활동을 펼칠 2026년 책 읽어주는 문화나눔단' 단원을 모집한다.

책 읽어주는 문화나눔단은 책을 매개로 세대와 이웃을 찾는 독서문화 나눔 사업으로, 문화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따뜻한 독서 경험과 정서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 인원은 총 20명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사업 기간은 11월까지다.

선발된 단원은 2월부터 3월까지 총 16회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교육 수료 후에는 4월부터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기관 등 20개소에서 본격적인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사전교육은 책 읽어주기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대상별 눈높이에 맞춘 동화구연 방법, 책 놀이 활동 기획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구성된다. 이후 현장 활동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독서 경험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관우 도서관사업소장은 "책 읽어주는 문화나눔단은 책을 통해 세대와 이웃을 찾는 독서와 봉사에 관심 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지원 총력

딸기농가서 농작업 현장 교육
소통 지원 시청각자료 제작 예정

완주군이 겨울철 농번기를 앞두고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현장 적응력과 농작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밀착형 현장 지원에 나선다.

우선 12월부터 16일까지 5일간 삼례읍 삼례리 소재 송현선 농가(딸기 하우스)에서 신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작업 기

무주군, 제1기 고령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교육생 모집

무주군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제1기 고령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에서 함께할 교육생을 오는 2월 20일까지 모집하며 인원은 12명 내외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으로, 신청은 1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스마트팜으로 방문하면 된다.

본격적인 교육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11월까지이며 스마트팜 기본역량 이론·실습부터 디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을 통한 전문 경영인 육성, 스마트팜 창업까지 단계별 학습 과정이 진행된다.

특히 경영관리, 시설관리, 작물생리, 품목 관리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 수료 후에는 스마트팜 창업 및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계와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수료조사 실시

장수군은 이달 30일까지 미을주민, 품목 농업인연구회, 농업인 학습단체 등 500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희망 수료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수료조사는 농촌 고령화와 함께 농작업 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골격계 질환과 넘어진 사고를 비롯해 농작업 중독 사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계절별·작목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해 유형을 반영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보건교육은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농작업 등과 개선과 보호구 착용 요령, 농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 등 실천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군은 농업인 스스로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일상적인 농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장수군은 이번 교육이 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작업 재해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과 농촌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우수 체험장' 선정

2025년 우수 목재문화체험장 선정 평가에서 '우수상'

'무주 목재문화체험장'이 산림청에서 주최하고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주관한 '2025년 우수 목재문화체험장 선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으며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49개 목재문화체험장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무주군은 지역 연계를 통한 운영 활성화 등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 자연휴양림 초입에 소재한 '무주 목재문화체험장'은 2023년도에 개장한 곳으로, 지상 2층 규모에 목공체험장을 비롯한 상상놀이터와 전시시설, 휴식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티아트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 중인 이곳에서는 목재 조각, 가구 만들기 등 목재의 특성을 배우고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위치상 '향로산 휴양림'과의 연계 이



'무주 목재문화체험장'이 산림청에서 주최하고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주관한 '2025년 우수 목재문화체험장 선정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으며 입지를 확고히 했다.

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 산림녹지과 이경일 산림휴양팀장은 "운영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2회 연속 우수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은 물론, 전문성이 담긴 프로그램 진행, 지

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설 명절 민생지원금 '신속 진행'

1인당 20만원 카드 즉시 발급

12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임실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전 군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서며, 신속한 민생 대응 행정을 본격화한다.

십 민 군수는 지난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결정한 민생지원금 20만원을 가장 빠르게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군은 도내에서 가장 먼저 12일부터 전 군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도내 최초로 가장 먼저 지급한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되며, 총

51억원(전액 군비)을 투입해 25,400여 명의 군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1월 30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포함되며,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현장에서 즉시 지급해 체감 속도를 높인다.

특히, 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이 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즉시 수령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해 행정절차를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이 단기간에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되도록 설계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소비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며,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면 세대원 전체에 대해 일괄 신

청할 수 있다. 개인별 신청도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전화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와 선불카드 지급을 진행한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임실군 내 대부분의 접포와 유통마트를 포함한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성수면 행복주택, 인구 유입 등 긍정 효과 높아

행복주택 12세대 45명 입주
면내 학교 학생 증가

진안군은 성수면 외궁리 안평마을에 조성한 '성수면 행복주택'이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인구 유입과 지역 교육 기반 유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성수면 행복주택은 지난해 12월 23일 준공식과 임대차 계약을 마쳤으며, 12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입주를 통해 관외 전입 6세대

24명을 포함해 총 12세대 45명이 성수면에 거주하게 된다.

군은 이번 인구 유입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주택은 농촌유학 가족, 신혼부부, 청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총 12세대 규모로 공급됐다.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3세대 20만 원, 9세대 25만 원으로 책정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

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주로 인해 지역 학교 학생 수 증가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외궁초등학교는 전입 학생 11명이 증가해 전체 학생 수가 기존 17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진성중학교 역시 전입 학생 2명이 늘어나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기된 학교 통합 우려가 해소되는 등 지역 교육 기반 유지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가족센터·다문화가족 배우자 자조모임, 장학금 기부

진안군 가족센터·다문화가족 배우자 자조모임에서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진안사랑 장학재단(이사장 전준성)에 기부금 2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가족센터 ON-DAY' 크리스마스 행사 당시 운영했던 바자회 수익금과 다문화가족 배우자 자조모임 회원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심사일반 정성을 보태 마련됐다.

박주철 진안군 가족센터장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치는 데에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과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2026년 이장단협의회 신년 간담회 개최

행정과 이장간 협력체계 강화

장수군은 군청 회의실에서 관내 7개 읍·면 이장단장으로 구성된 장수군이 이장단협의회(회장 송동훈)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지역의 최일선에서 군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이장단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행정과 이장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송동훈 장수군이장단협의회장, 7개 읍·면 이장단협의회장 및 총무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과 주민 불편 사항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지난해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이장단협의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주요 군정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최 군수는 행정과 마을을 잇는

장수군-대자인병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협약

심뇌혈관질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전문 치료 연계 강화

장수군은 대자인병원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상호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심뇌혈관질환 대응 진료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문 의료기관과 지역 내 증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부터 응급 대응, 급성기 치료, 재활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노승무 장수군보건의료원장, 이병관 대자인병원 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뜻을 나눴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협력 △응급

생 시 신속한 진료 의뢰 및 전문 치료 연계 △심뇌혈관질환 진료 연계 및 운영 현황 공유 등으로 실질적인 의료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발병 후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명은 물론 심각한 기능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서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문 의료기관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은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전문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군민의 건강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군민 맞춤형 검진' 눈길

골다공증 검사부터 폐암 CT까지

무주군이 '군민 맞춤형 검진'을 실시한다. 이는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한 예비·신호부부 검진(결혼 전·출산 전부부)과 △난소암 검사(45세 이상 여성), △골밀도 측정을 통한 골다공증 검사(40~64세 여성), △유방 활영을 통한 유방암 검사(30~64세 여성)를 진행한다.

또한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검사(전립선특이항원)와 △폐암(CT) 검사를 실시한다. 드림스타트 아동, 요양원 입소자,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검진(혈액, 소변 검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선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장수군은 "의료취약지라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둔 공공의료서

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더 많은 군민이 맞춤형 검진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정확하고 안전한 검진 진행으로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가입자(20세 이상 째수년도 출생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19~64세 째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신체 계측과 혈액 및 소변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의 국가건강검진도 시행된다. 영유아(생후 15일~71개월) 검진은 신체 계측과 문진,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위암(40세 이상, 위장조영술), 대장암(50세 이상 매년 분변점검검사),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유방 활영검사), 간암(40세 이상 고위험군, 혈액·초음파 검사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 및 무주군민 맞춤형 검진 관련 문의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으로 하면 된다.

/무주=최진수 기자

장수군,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노후 경유차 대상 연납 신청 시
납부금액 10% 감면 혜택 제공

장수군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이번 달 20일까지 받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



군산 한라비발디센트로 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과 라면 기탁

군산시 구암동(동장 박수현)은 한라비발디센트로 어린이집(원장 이은영)이 어린이집 바자회 수익금 3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라면을 기탁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기탁에는 원생 35명과 교직원 12명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아이들과 교직원은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원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기부한 라면이 성품에 포함되어 있어 더욱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은영 원장은 “아이들과 함께 바자회를 준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교육의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주)신성건설, 익산시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익산시는 지난 9일 '(주)신성건설'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용호 대표는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성건설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성건설은 전주시 소재 건설업체로 주택을 비롯한 각종 건설사업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 수소에너지고등학교 감사패 수상

지역 인재 육성·학생 복지 증진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지난 9일 지역 인재 육성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로를 인정받아 완주 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장학금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 복지와 교육 여

건 개선에 기여했으며, 교육격차 해소와 진로·학습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 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완주 수소에너지고등학교는 이러한 지원과 관심이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미래에 대한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진안 가수마을 이장 오영근,
장학금 200만원 기탁

지난 9일 성수면 가수마을 오영근 이장이 지난 9일 성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준성)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오영근 가수마을 이장은 “마을을 봄보는 입장으로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저 우리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이에 전준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변함없이 4년 연속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오영근 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꾸준한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진안의 인재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뿐 아니라, 중학생 해외 역사탐방, 생활과학교실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진안군 관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정읍사회복지관, 국제 NGO 글로벌쉐어 통해 신발 후원 받아

신발 2980켤레 후원

정읍사회복지관은 지난 7일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글로벌쉐어를 통해 (주)티엔씨아이엔티로부터 총 6676만 5000원 상당의 신발 2980켤레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연계해 주민 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대일화학 유운규 대표, 순창군에 성금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지난 9일 대일화학 유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내 고향

운규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

순창을 응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순창군 적성면 출신인 유운규

도 변함없이 고향을 응원하며 순

대표는 현재 대일화학을 운영하며

창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발전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 참여

유 대표는 지난 2023년에도 고향

하겠다”고 밝혔다.

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최영일 씨는 “보내주신 소중

등 고향 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

한 기부금은 군민 모두가 체감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잘 사

용하겠다”고 말했다.

용하겠다”고 말했다.

유운규 대표는 “타지에서 생활

정일범 씨가 고

정일범 씨가 고장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정일범 씨가 고(故) 김광석 가수의 30주기를 기념해 지난 3일 전주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개최한 '1995년 김광석 슈퍼콘서트 Again'의 공연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됐다.

정일범 씨는 2010년 배운초등학

교 학예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

타 연주와 가족 합창을 선보인 것

을 계기로 통기타 연주를 시작했으며, 이후 음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전라북도소방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군청 퇴직 공무원 행사 등에서 공연 봉사를 펼치며 재능기부 활동도 지속해 왔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백운면 출신 정일범 씨, 장학금 1,000만원 기부

진안사랑장학재단은 지난 8일 진안 부군수실에서 백운면 출신 정일범 씨가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정일범 씨가 고(故) 김광석 가수의 30주기를 기념해 지난 3일 전주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개최한 '1995년 김광석 슈퍼콘서트 Again'의 공연 수익금 전액으로 마련됐다.

정일범 씨는 2010년 배운초등학

교 예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

타 연주와 가족 합창을 선보인 것

을 계기로 통기타 연주를 시작했으며, 이후 음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전라북도소방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군청 퇴직 공무원 행사 등에서 공연 봉사를 펼치며 재능기부 활동도 지속해 왔다.

/진안=전길빈 기자



순복음중앙교회, 익산시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성금 기탁

익산시에 자립준비청년들의 희망찬 출발을 응원하는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지난 9일 ‘순복음중앙교회’로부터 성금 2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해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현금으로 마련됐다.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바울 목사는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가 종료된 이후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기탁이 청년들의 생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따뜻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화재예방 수칙

1. 대진 불씨 확인 철저



2.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3. 음식을 조리 중 자리 지키기



4. 초 사용시 주변 가연물 제거



JBT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一事一言〉



무너진 인사, 추락한 신뢰 - 남원시 행정의 퇴행

김관춘
주필

남원시 행정이 깊은 수렁 속에 빠졌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꼴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것도 모자라, 최근 2년 가까이 이어진 인사 비리 의혹의 중심인물과 함께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정과 원칙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공공기관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깊은 모욕이다. 문제의 핵심은 남원시 인사가 상식과 공정을 헐저히 외면해 왔다는 데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법으로 체포된 공무원이 불과 두 달 만에 승진 대상이 되고, 경찰 수사를 받는 인사 담당 공무원이 오히려 서기관으로 승진 내정되는 현실을 어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판단 미숙의 차원을 넘어, 조직 전반에 뿐만 아니라 '제 시구 쟁기'와 같은 남용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 특히 인사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5급 공무원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 내정한 결정은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가 '제기 불능 수준의 인사'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지자체가 최소한의 반성과 자정 노력조차 없이 논란의 당사자를 중용하는 모습은, 스

스로 개혁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사태는 단발성 논란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음주 측정 거부 사건 이후 이어진 승진 취소, 초고속 특별 승진 논란, 그리고 다시 불거진 서기관 승진 내정까지, 남원시 인사를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두 차례나 이뤄졌고, 시장실까지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됐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 대응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논란이 커질 때마다 "문제 없다"거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해명만 반복할 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렴도 최하위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은 단지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행정 전반에 던지는 경고다.

남원시는 지금이라도 빠를 끼는 반성과 실질적인 개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는 물론, 더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더 혹독한 시민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단순히 특정 인물의 일탈이나 개별 인사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문제는 '누가 승진했는가'가 아니라 '왜 이런 승진이 가능했는가'다. 반복되는 논란은 남원시 인사 시스템 전반에 특정 권력과 관계, 비공식적 영향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인사 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으로 기능했는지, 내부 견제 장치는 작동했는지, 규정과 원칙이 실제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인사권자의 판단이 행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

이제 남원시는 더 이상 시간 끌기나 책임 회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전북자치도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인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행사 책임과 별개로 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묻고, 인사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인사 검증 기구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인사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그 근간이 무너지면 행정도, 민주주의도 설 자리를 잃는다.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은 단지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행정 전반에 던지는 경고다. 남원시는 지금이라도 빠를 끼는 반성과 실질적인 개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

렇지 않다면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는 물론, 더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더 혹독한 시민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단순히 특정 인물의 일탈이나 개별 인사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문제는 '누가 승진했는가'가 아니라 '왜 이런 승진이 가능했는가'다. 반복되는 논란은 남원시 인사 시스템 전반에 특정 권력과 관계, 비공식적 영향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인사 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으로 기능했는지, 내부 견제 장치는 작동했는지, 규정과 원칙이 실제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인사권자의 판단이 행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

면, 이번 사안은 '신뢰의 위기'라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인사는 공직사회의 나침반이다. 그 나침반에 훈들리면 공무원들은 방향을 잃고, 시민들은 행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남원시가 인사 논란을 방지한 채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말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시민의 불신은 이미 겉걸을 수 없이 커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꼬리 자르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직사회 안팎의 불안이다. 봄통은 건드리지 못한 채 실무자 선에서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을 뿐이다. 전북도 역시 행사 절차와는 별도로 행정적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남원시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인사 비리 의혹을 '과거의 소란'으로 뒹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픈 상처를 둘러내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후자를 탐하지 않는다면 남원시 행정은 앞으로도 끊임 없는 의혹과 불신 속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 공정과 청렴을 회복하지 못한 행정은 결국 시민의 외면을 받는다. 남원시는 이 자명한 진리를 직시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개선과 변화의 의지를 증명할 때다.

르게 기업들의 투자 속도가 눈에 띠게 빨라졌다.

물론 아직 투자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 변수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행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단순히 '기업 사정'으로 미뤄둘 것이 아니라, 왜 투자가 지연되는지 그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전담관리제가 형식적 절검에 그치지 않고, 투자 철회 가능성까지 사전에 관리하는 '조기 경보 장치'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다.

도내에는 현재 이미 투자를 완료해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46곳에 달하고, 96곳은 입주 계약이나 건설, 준공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이행 중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50%대에 머물던 실투자율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것은 전북자치도가 투자유치를 '체결'이 아닌 '이행' 중심으로 관리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투자유치기업 전담관리제는 형식적인 MOU 관행을 넘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담관리제는 기업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협약 이후부터 준공·가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방식이다. 분기별 현장 방문과 수시 점검을 통해 투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인허가·부지·자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즉각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환경 인허가 지원, 공장 부지 보조금 연계, 금융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지원이 이어지면서 과거와 다

실투자율 73%, 전북도가 보여준 투자유치 성과

기업이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투자 양 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종이 약속'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협약 당시에는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을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영 여건 악화나 시장 변화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 성과는 분명 눈여겨볼 만하다. 민선 8기 들어 체결된 투자협약 227건 가운데 73%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성과다.

도내에는 현재 이미 투자를 완료해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46곳에 달하고, 96곳은 입주 계약이나 건설, 준공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이행 중이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50%대에 머물던 실투자율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한 것은 전북자치도가 투자유치를 '체결'이 아닌 '이행' 중심으로 관리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투자유치기업 전담관리제는 형식적인 MOU 관행을 넘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담관리제는 기업마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협약 이후부터 준공·가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방식이다. 분기별 현장 방문과 수시 점검을 통해 투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인허가·부지·자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즉각 해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환경 인허가 지원, 공장 부지 보조금 연계, 금융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지원이 이어지면서 과거와 다

오늘의 시

인동(忍冬) 일 / 김 춘 수

눈 속에서 초겨울의
붉은 열매가 익고 있다.
서울 근교(近郊)에서는 보지 못한
꽁지가 하얀 작은 새가
그것을 쪼아먹고 있다.
월동(越冬)하는
인동(忍冬) 일의 빛깔이
이루지 못한 인간(人間)의 꿈보다도
더우 슬프다.

시인 악력 : 1922년 경남 통영 출생. 경성제일고보를 졸업했다. 마산고에서 교사를 역임했다. 1946년에 시 '애가'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61년 경북대와 영남대 국어국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81년 민정당에서 전국구 의원을 하다 정계에서 은퇴한 뒤 시인과 평론가로서 활동했다. 1948년 첫 시집인 '구름과 장미' 출간을 시작으로 '산악(山巒)', '꽃을 위한 서시'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등을 발표했다. 1958년에 한국 시인협회상, 1959년에 아시아 자유문학상을 수상했다.

벼 연구와 정책 동향: 기후위기 대응과 스마트 농업 혁신



벼 농업의 미래는 기후 위기와 싸워야 한다는 두 가지 중요한 도전에 맞서 혁신적인 연구와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탄소 저감 기술, AI 기반 스마트 농업, 그리고 국산 품종 개발이 핵심 연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감탄' 벼의 개발은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고 있다. 중장기 농업 정책의 핵심은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농업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벼의 생육 상태와 기상 재해를 예측하고, 최적의 물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후 재해를 미리 예측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AI 센서의 활용도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벼 재배 현장에서 AI 기반 센서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약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벼 생육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어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실증 연구는 실제 농업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 인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또한, 재배 기간 단축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기존 벼 품종에 비

해 한 달 정도 생육 기간을 단축 시킨 극초생종 벼가 개발되었는데, 이 품종은 석 달 만에 수확할 수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한 날씨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준다.

이를 통해 농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두 차례의 수확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I와 로봇 기술의 결합은 농업의 미래를 혁신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중장기 농업 정책의 핵심은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농업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벼의 생육 상태와 기상 재해를 예측하고, 최적의 물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후 재해를 미리 예측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쌀 시장은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GSJN 인스티튜트의 '쌀가격 동향'에 의하면 2026년 국내 쌀 공급량은 2025년 대비 약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적으로는 인도의 풍작 등으로 전 세계 쌀 공급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쌀 생산자들의 수익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벼를 전략 작물로 지정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쌀 재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벼 농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 중점을 두고 있다.

벼 농업은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농업 도입, 그리고 품종 개발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산 품종의 품질을 높이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벼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경감하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농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벼 농업이 더욱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이인석

본 란의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창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월간)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택진로77(전북동) 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사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왕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부안지국 010-8642-6502
인후지사 010-8640-8855	익산지국 010-9560-3075	고창지국 010-2258-3734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완주지국 010-3672-0308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8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읍시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힘찬 질주를 시작했다. 이 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8일 오전 11시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시정 운영의 핵심 핵심으로 '민생은 두텁게, 미래는 확실하게!'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5년이 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2026년은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는 '실행과 완성의 해'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민선 8기 시정이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계획을 넘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결실을 맺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정읍시, 2026년 '실행과 완성' 원년 선포

“민생은 두텁게, 미래는 확실하게”



2026년 신년 기자회견… “준비를 넘어 성과로 증명하는 해”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선순환 ‘마중물’
바이오·반려동물 산업 등 미래 100년 먹거리 육성 본격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 위기 속 '재정 혁신'… 민생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되다

정읍시의 2026년 시정 설계에서 가장
눈에 띠는 대목은 선제적인 민생 지원책
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둔화가 지
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활을 지키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읍시의 철학이다.

이를 증명하듯 정읍시는 올해도 전 시
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을 지급하는 계단을 내렸다. 총 305억원
규모의 이 지원금은 1월 19일부터 정읍
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가계의 부담
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
진하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
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대규모 재정 투입
이 무리한 지출이 아닌,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시는 관
행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전감
사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해 2025년 한 해에
만 229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이
러한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
영 성과는 '제18회 대한민국 지
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이라
는 평가로 이어지며 국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절감된 예산은 시민 환원 사업으로
이어진다. 시는 올해 정읍사랑상품권 발
행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
상공인 안정지원금 및 카드 수수료 지원
등에 33억원을 투입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할 계획이다.

■ 바이오·반려동물·첨단산업… 미래
100년 먹거리 '가시화'

민생 안정과 더불어 정읍시는 지역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실
한 기업이 정읍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완결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이 목표다.

시는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
획'을 수립하고, 연구부터 창업, 생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특히 국비 160억원을 확보한 '바이오
지식산업센터(2026~2029년)'와 '제약산
업 미래인력 양성센터(2022~2026년)' 건
립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바이오 특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을 새로운 성장 축
으로 설정하고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
자유특구 예비특구 지정사업'과 연계해
반려동물 놀이동산을 조성하는 등 산업
과 복지, 관광이 결합된 융복합 산업벨트
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산업단지 확장(약
5만 5000평) 조성 사업, 태인 신규 일반
산업단지(약 33만평) 조성 사업을 속도
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찾아오는 매력적
인 투자 환경을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이 정읍을 떠나지 않고 정
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지난 3년 6개월간 정읍시는 21개
기업 유치, 1541억원의 투자 유치, 36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
를 거둔 바 있다.



■ 스마트 농업과 체류형 관광… '사람
이 모이는 정읍'

농도 정읍의 위상을 미래형으로 탈바
꿈시키는 작업도 계속된다. 농촌의 고질
적인 문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운영하고 농촌 인
력증개센터를 활성화해 농번기 인력 수
급 걱정을 덜어준다.

더 나아가 정읍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확산 지원, 빅데
이터 기반 최적 생산모델 보급 등 스마
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른다. 청년 농
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 정착 지원 등 27
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을 양성해 젊은 피가 수혈되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 계획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의 변모를 꾀한다. 내장호와 조각

공원 일원에 치유센터와 아트힐링정원
등을 조성해 생태관광 수변공간을 만들고,
문화광장에는 익스트림 놀이시설과
동화마을을 도입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한다.

또한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로 재해석한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
트관'을 본격 운영하고, 무형유산 전수
교육관 건립을 추진해 정읍만의 고유한
매력을 알리는 문화 콘텐츠를 강화한다.
도심 속에서도 시민과 관광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읍천 야간경관, 벽천
분수, 도심 광장 조성 등 도시 재생과 관
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한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각지대 없
는 '운기 복지' 실현

2026년 정읍시정의 또 다른 한 측은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이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
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예비부부 결혼 예식비 지원을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
으로 두 배 확대하고, 청년과 신
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
출이자 지원 소득 기준을 청년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신혼부부
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서남
권 소아외래진료센터 및 어린이 전용 병
동 운영을 내실화해 지방의 필수 의료
공백 우려를 해소시킬 계획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돋기 위해 1인 청년
가구 식비 지원, 생애 첫 주택·직장·차
량 취득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
공하며,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시니어 의
사를 채용한 지역 주민의 제도 시행, 경
로당 양곡 추가 지원, 치매 치료 지원 확
대 등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한다.

이학수 시장은 "2026년은 정읍시가 추
진해 온 각 분야의 정책들이 완성 단계로
올라서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읍시의
모든 공직자는 '활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뒤로 당겨지는 것처럼, 지난 시간
의 준비를 발판 삼아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해 시민의 삶을 지키고, 정읍의 기분 좋
은 변화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謹賀新年

전주페이퍼

전주페이퍼가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55년동안 신문출판용지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전주페이퍼가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신문, 책, 포장 박스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종이를 생산하는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나아갑니다.

